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점자해설도감

손끝으로 걷는 바다백리길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손끝으로 걷는 바다백리길

발간사

이번 '손끝으로 걷는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 위주로 담았습니다.

애초 국립공원의 멸종위기생물을 담은 생물 도감을 기획했으나 시각장애인 분들이 전혀 접해보지 않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는 것 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바다백리길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그 길에, 그 섬에 무슨 생물이 사는지를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사는 생물들을 손끝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의 독자가 될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더 의미 있는 도감이 될 거라 생각하였고 원고를 다시 작성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 도감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국립공원의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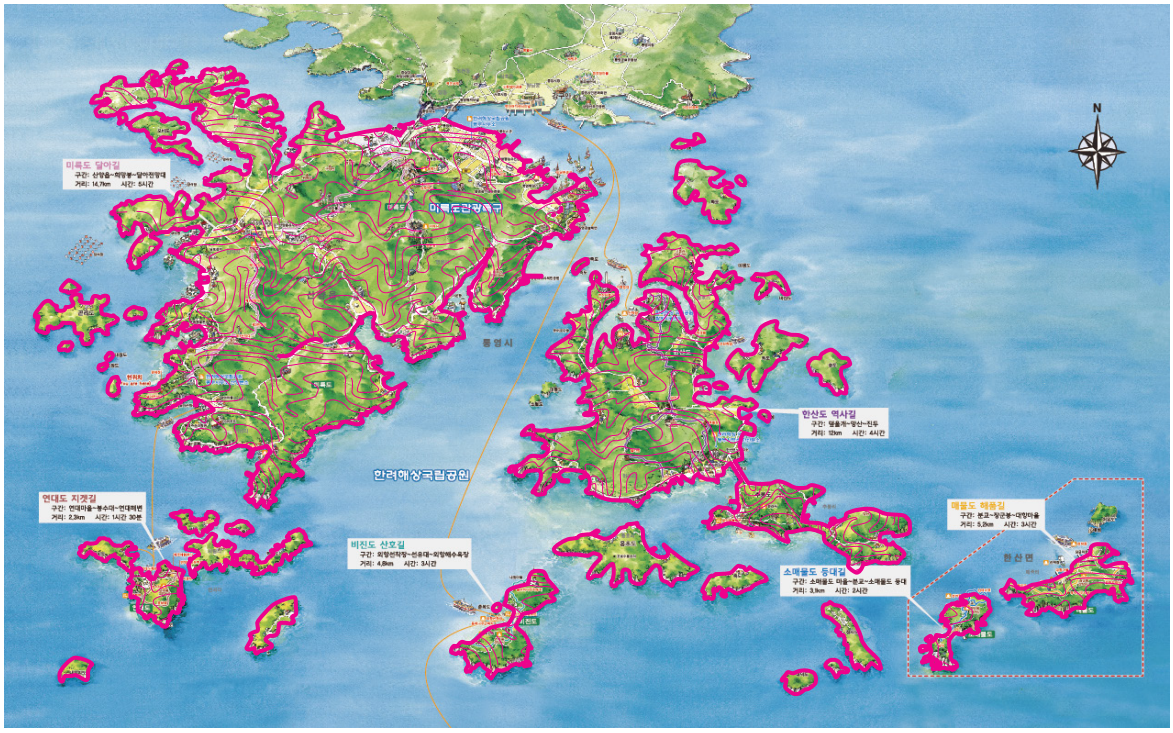
끝으로, 이 점자해설도감이 완성되기까지 기획하고 참여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송 동 주

손끝으로 걷는 바다백리길

머리말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된 것이 1967년 지리산이다. 그 다음해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었고 해상국립공원으로는 최초이다.

통영 한산도에서 여수 오동도까지 이르는 300리 바닷길을 일컬어 한려수도라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천, 남해, 여수 오동도를 관리하고 통영, 거제지역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 경관이 아름다운 6개의 섬을 묶어 둘레길을 만들었다. 이것이 한려해상바다백리길이다.



바다가 배경이 된 한 폭의 그림 같은 6구간의 둘레길은 섬사람들이 놀 다니던 길이거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새로이 조성한 길이다. 이름이 잘 알려진 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섬도 있다. 6개의 섬이 저마다 다른 매력과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다. 바다와 가까워 파도를 보며 걷는 길이 있는가 하면 초원지대를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길이 있고 또 울창한 숲 속을 거니는 느낌의 길도 있다.

6구간이 다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매력이 있듯 난이도도 각각이다. 일부 섬의 몇 구간을 오를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마치 섬이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탁 트인 바다 주변의 기운과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바람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바다백리길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책에 매력 넘치는 6개 구간의 바다백리길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손끝으로 걷는 바다백리길

차 례

1. 소매물도 등대길 8

2. 비진도 산호길 18

3. 매물도 해품길 28

4. 연대도 지겟길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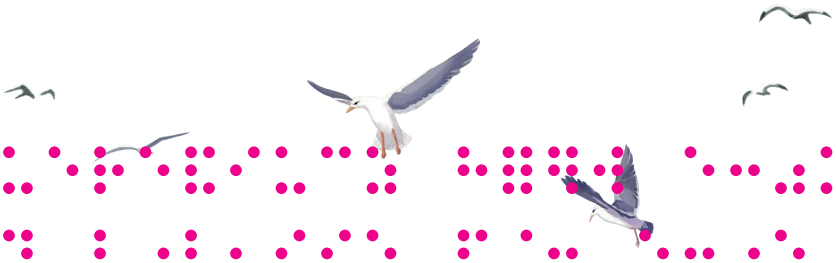
5. 한산도 역사길 48

6. 미륵도 달아길 58



1 소매물도 등대길


한 려 해 상 국 립 공 원
등대섬전망대
촛대바위
망태봉
전적역사관
가익도전망대
양귀비꽃밭
남매바위
소매물도
탐방관리센터
선착장
등대섬
매트릭스
태섬선착장
옆목개
한 려 해 상 국 립 공 원
신기한 상어굴
한 려 해 상 국 립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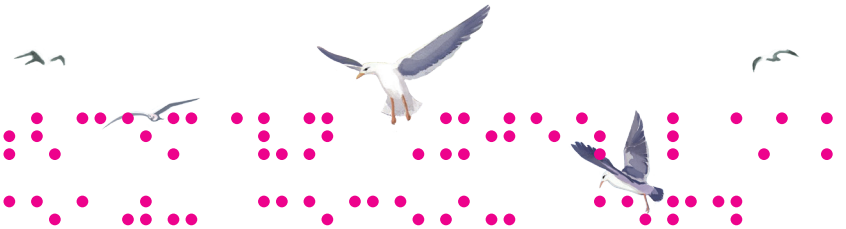


소매물도는 통영의 많은 섬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섬이다.

소매물도 옛 분교의 작은 운동장이었던 곳 주변은 동백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소매물도에서만 자라는 건꽃며느리밥풀꽃 군락이 있는데 분홍색 꽃이 아름답다. 하루 두 번만 길이 열리는 열목개는 오는 이들을 등대섬으로 안내한다. 열목개를 건너다 보면 큰 바위와 몽돌 틈, 그리고 바닥사이에 마치 거북이가 틈에 끼인 것처럼 보이는 거북손이 있다. 소매물도에는 특이하게 천연기념물인 매가 자주 보이는데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마치 소매물도를 지켜 주는 듯 하다.

1-1
동백





차나무과에 속하며 사계절 초록을 간직한 나무이다. 겨울에 꽃을 피워 동(冬)백이라 불린다. 추운 겨울에 아름답게 피어 사랑을 많이 받는 꽃이다. 겨울철이라 수분을 도와줄 곤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붉고 강렬한 색으로 동박새를 불러들여 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주로 해안가 섬 지역에 많이 서식하지만 육지에서도 관상용, 정원수로 많이 키운다. 키는 약 15~18m정도까지 자라고 직경도 최대 50cm정도로 자란다. 잎 표면은 광택이 있고 앞면은 짙은 녹색이며 뒷면은 황록색이다. 토종 동백꽃은 주로 붉은색이지만 남쪽 섬에서는 흰 동백도 있다. 꽃잎은 5~7개의 홑겹이고 시들어 떨어질 때는 낱장으로 떨어지지 않고 꽃 전체가 통으로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2
긴꽃여느리밥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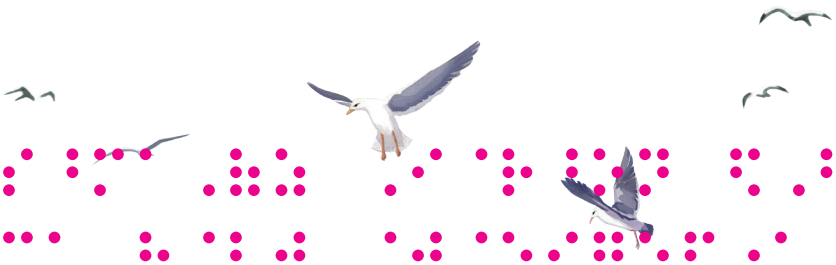
현삼과의 1년생 식물로 씨앗으로 번식하는 반기생식물이다. 전국산지에서 자란다. 높이가 30~50cm정도이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붉은 꽃이 7~8월에 가지 끝에 곡식의 이삭과 같은 모양으로 피고 10월에 열매가 맺는다. 관 통 모양처럼 생긴 꽃 끝이 입술처럼 갈라져 있고 아랫입술에 해당되는 꽃잎 가운데 하얀 밥알처럼 생긴 무늬가 2개 있다.

일반 꽃며느리밥풀꽃보다 꽃 길이가 조금 더 길어 긴꽃며느리밥풀꽃이라 한다. 소매물도에서 발견된 미기록종으로 알려져있다.

1-3
거북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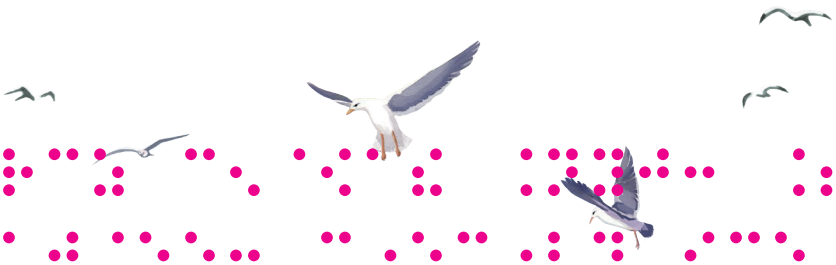




거북손은 따개비에 가까운 거북손과의 절지동물로 바닷가의 바위틈에 떼 지어 붙어산다. 몸통 전체 길이는 4~5cm, 너비는 3~5cm가량이다. 몸은 머리와 자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 부분이 거북의 다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거북손이라 한다. 32~34개의 석회판으로 덮여 있고 그 사이에 여섯 개의 돌기가 나와 호흡과 운동을 맡는다. 자루 부분은 석회질의 잔비늘로 덮여 있고 어두운 갈색을 띤다. 암수 한몸으로 알에서 부화하여 성체가 될 때까지 6번의 변태 과정을 거치며 크게 변한다. 바닷가 바위틈에 붙어 살며 바닷물에 잠겼을 때 다리를 내놓아 먹이를 잡는다.

1-4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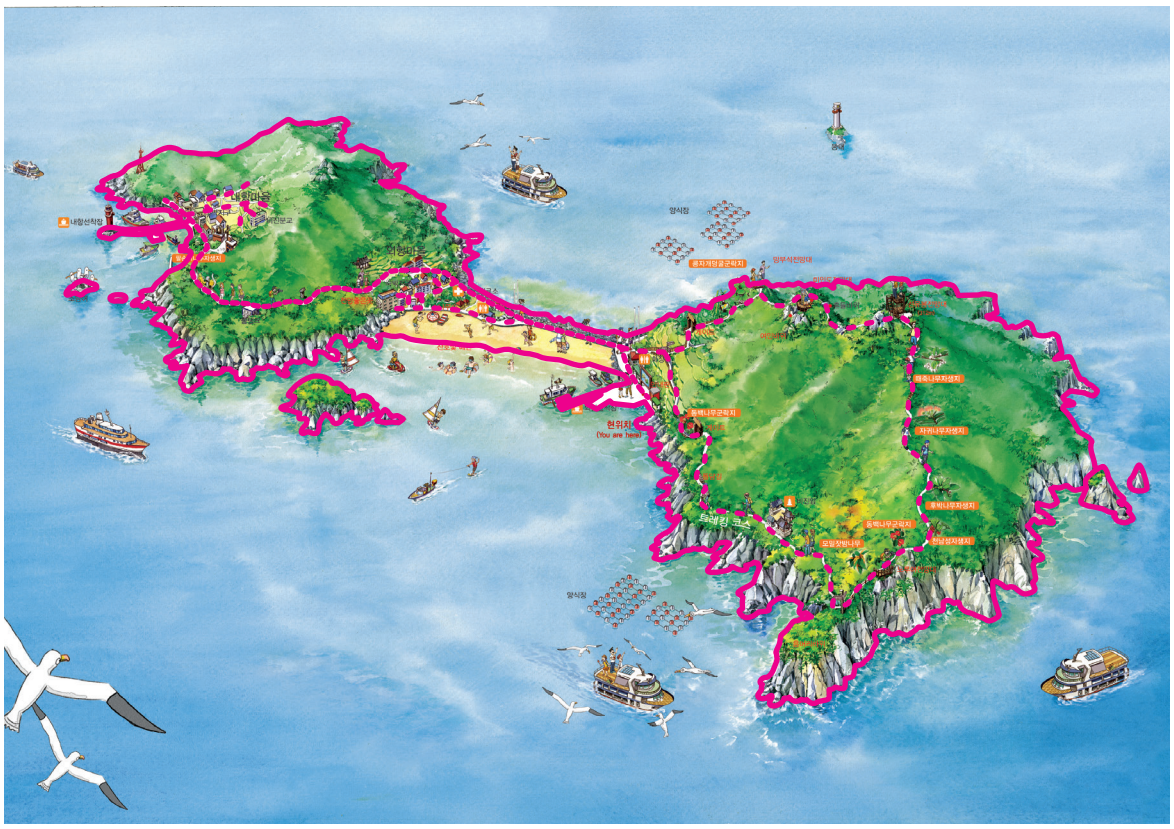
매는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텃새 또는 겨울철새이다. 해안이나 섬 등의 암벽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농경지, 습지 등에서 서식한다. 단독생활을 하며 비행 실력이 뛰어나고 발톱이 날카로워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 사냥하기도 한다.

암컷과 수컷은 실제 야생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수컷은 40cm정도이고 암컷은 49cm정도이다. 번식기인 3월~5월 암수가 짝을 지어 섬 절벽에서 생활하며 움푹한 맨바닥에 알을 낳아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어린새는 옅은 흑갈색을 띠고 다 자란 매는 짙은 청회색을 띤다.

매는 천연기념물 제323-7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 되고 있다.

2 비진도 산호길


내항마을
내항선착장
비진보교
비진마을
종자개발굴곡지
임부식전망대
현위치
(You are here)
트레킹 코스
염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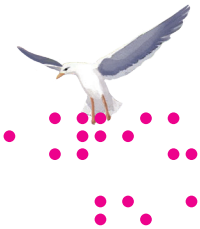


보배에 견줄만큼 아름다운 섬이다 하여 비진도라 불린다.

비진도 산호길을 출발하여 올라가다보면 예쁜 색의 콩깍지를 발견하게 된다. 비진도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의 비진도콩 이다. 비진도 포토존 마인전망대를 지나 비진암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큰 후박나무들이 있다. 비진도 해변은 해양 생물이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군부는 생김새가 넓적하고 바위에 딱 붙어 있다. 비진도 해안은 여러 종류의 새가 많다. 그 중 제일 큰 조류인 왜가리는 학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해변을 누비고 다니며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찾아 다닌다.

2-1
비진도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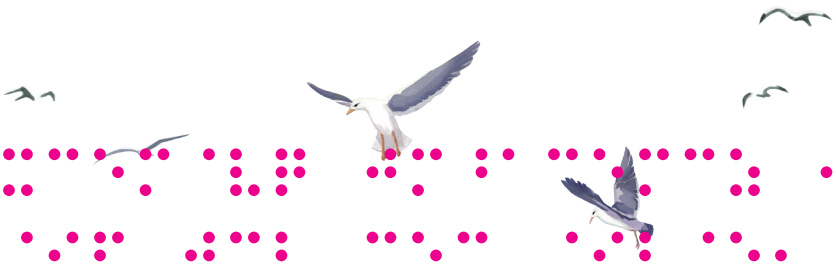


콩과인 비진도 콩은 1978년 통영 한산면 비진도에서 처음 채집 되었다 하여 비진도콩이라 불린다. 덩굴성 여러해살이풀로 길이 100~300cm 정도로 자라고 밑으로 향한 누운털이 있고 흑자색을 띤다. 8~9월에 노란색 꽃이 피며 열매는 길이 4cm, 지름 1cm인 자주색 콩깍지에서 익는다. 보통 지름4~6mm의 콩(씨앗)이 3~5개 들어 있다.

2-2
후박나무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원작자 국립생물자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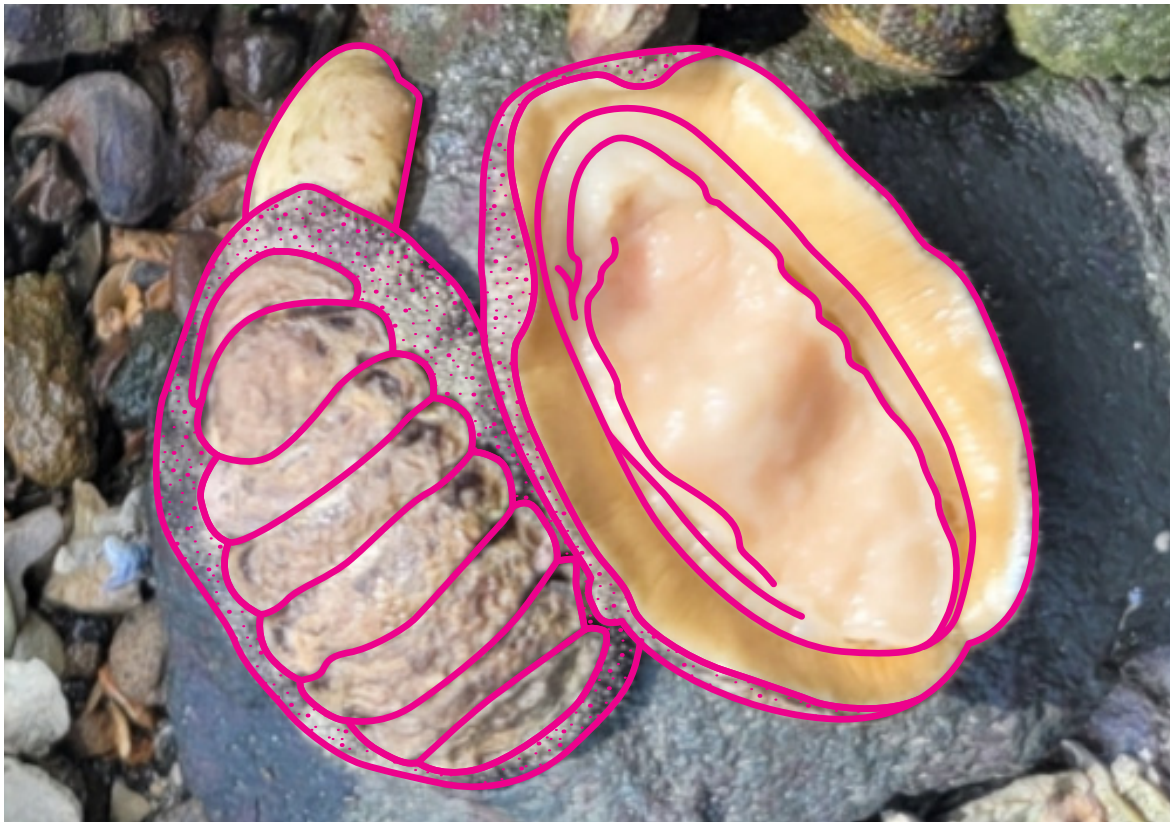
녹나무과인 후박나무는 한자로 두꺼울 후(厚)와 나무껍질 박(朴) 자를 써서 껍질이 두꺼운 나무로 사계절 푸름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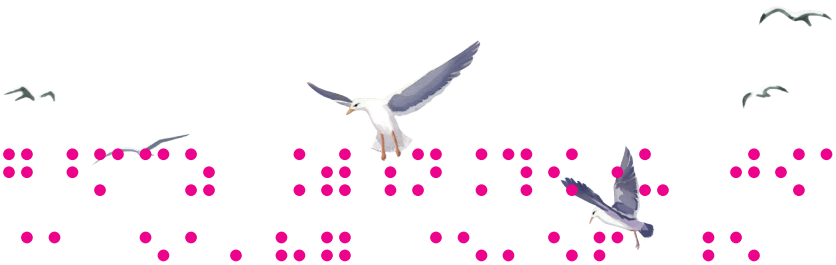
생김새가 인정이 두텁고 거짓이 없다는 '후박한' 시골 인심을 연상하듯 너그럽고 편안해 보인다.

후박나무의 크기는 보통 높이 20m, 지름 1m인데 나무껍질은 녹갈색이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비늘조각처럼 껍질이 떨어지며 회백색의 얼룩이 있다. 추위에 약하여 울릉도, 남쪽 도서지방에서 주로 서식하고 해발 500m이하의 지역에서 비교적 잘 자란다. 늦은 봄과 초여름 사이에 황록색 꽃이 핀다.

통영 욕지면 연화도, 산양읍 추도에 후박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2-3
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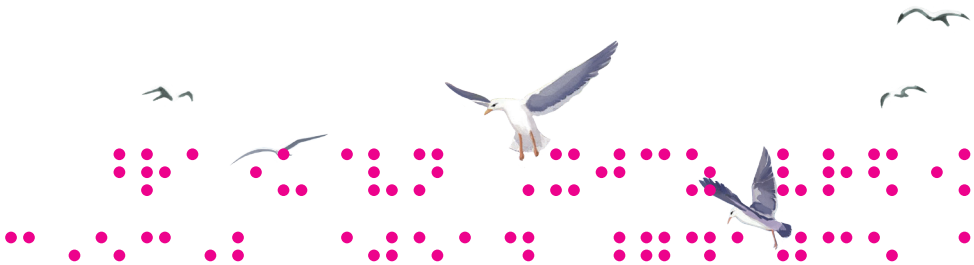


군부는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고 몸통 길이가 5~8cm정도이며 8장의 덮개가 있는 것처럼 패각 판이 있다. 몸 가장자리는 수많은 작은 돌기들이 덮여 있어 기어 다니거나 해안가 바위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다.

얼핏 보면 투박해 보이나 몸 전체에 유연성이 좋아서 바위틈, 구석진 아래에 몸을 완전히 밀착 시킨 상태로 살아간다. 바위에서 떨어진 군부는 몸을 공처럼 구부린다. 밀착력이 좋아 도구 없이 떼어 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약 20여종의 군부가 살고 있고 주로 수심이 낮은 조간대 근처에서 서식한다.

2-4
왜가리





백로과에 속하는 왜가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 하는 여름 철새이나 일부 개체는 겨울을 나기도 한다. 다 자란 왜가리의 크기는 94~97㎝정도로 크다. 몸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고 배는 흰색이며 앞목에는 검은 세로줄 무늬가 있다. 머리는 흰색인데 눈에서 뒷머리까지 검은 줄의 우아한 댕기가 있다. 암수 구별이 어려우며 번식기에는 부리가 주황색, 다리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길고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해안, 하천, 저수지 등지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작은 조류를 잡아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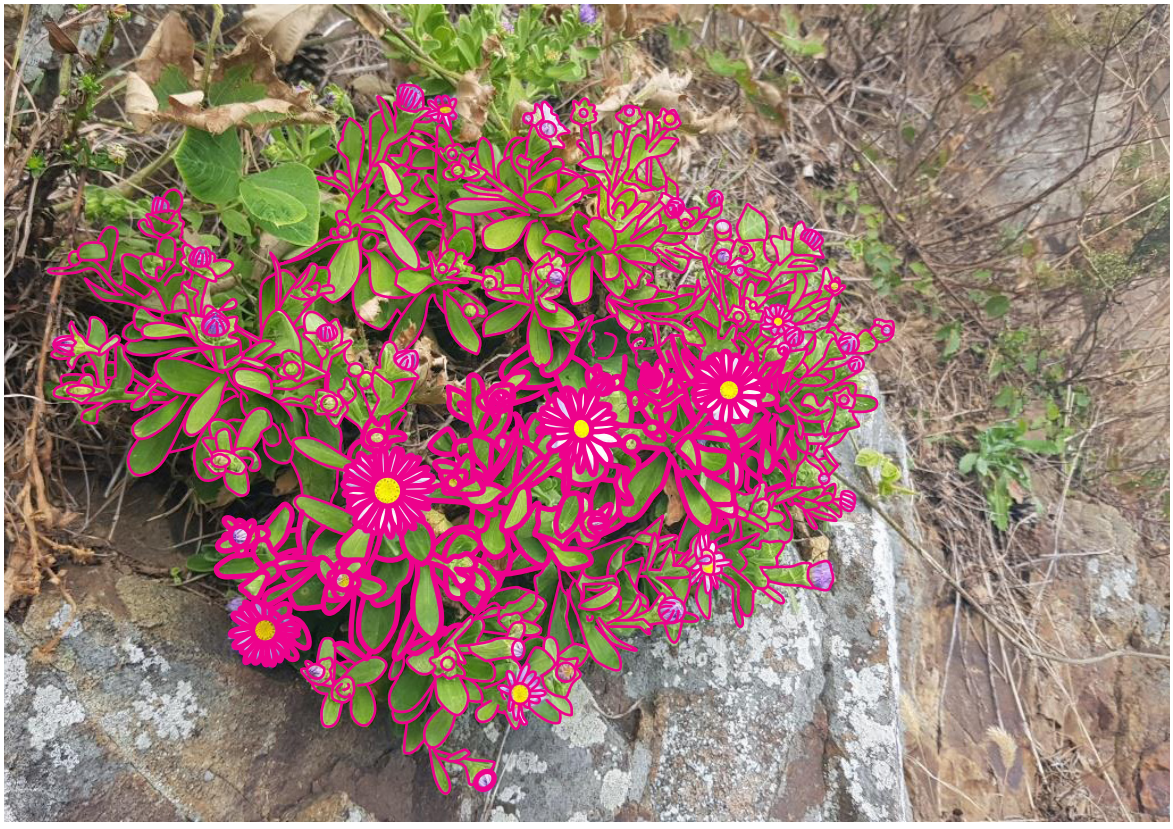
3 매물도 해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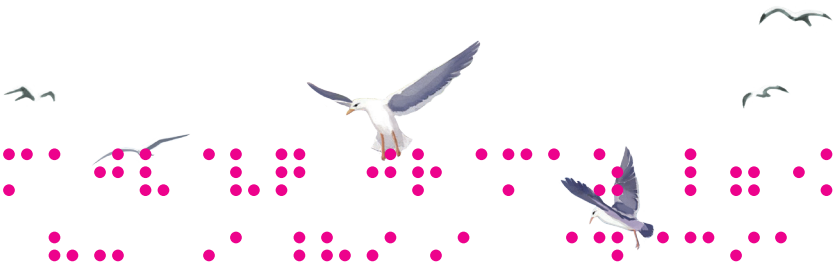




매물도는 통영에서도 배를 타고 거의 2시간을 가야되는 섬이다.
매물도에는 당금과 대항 두 개의 마을이 있고 둘레길 전체의 길이는 5.2km의 초원지대로 어느 곳에서나 바다를 느낄 수 있다. 매물도 해품길에는 바다의 국화인 해국이 지천이다.
또 보랏빛의 작은 솜뭉치가 층층이 나 있는것 같은 층꽃나무도 있다.
매물도와 가까운 홍도는 괭이 갈매기가 집단 서식하는 섬이라 인근 매물도에서도 괭이갈매기는 쉽게 만날 수 있다. 매물도 주변 해안에서는 아주 가끔 귀여운 돌고래를 닮은 상괭이를 만나기도 한다. 매물도는 일몰이 장관이다.

3-1
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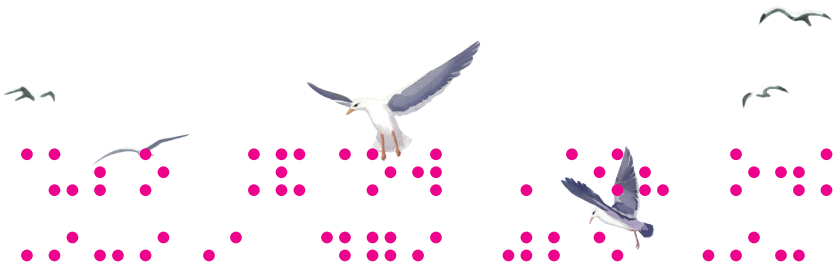




국화과인 해국은 상록성 다년생 초본으로 제주도 및 전국의 해안가 절벽에 자생한다. 잎이 어긋나 자라지만 모여나기 한 것처럼 보이고 주걱 모양을 하고있다. 잎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나 있어서 만지면 감촉이 좋다. 7~10월에 연한 보라색 꽃이 피고 11월에 열매가 익는다. 해국의 크기는 30~60cm로 바닥이나 절벽에서 비스듬히 자란다. 일반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바닷물에도 잘 견딘다. 하지만 추위에는 약해 따뜻한 섬 지역이라도 겨울나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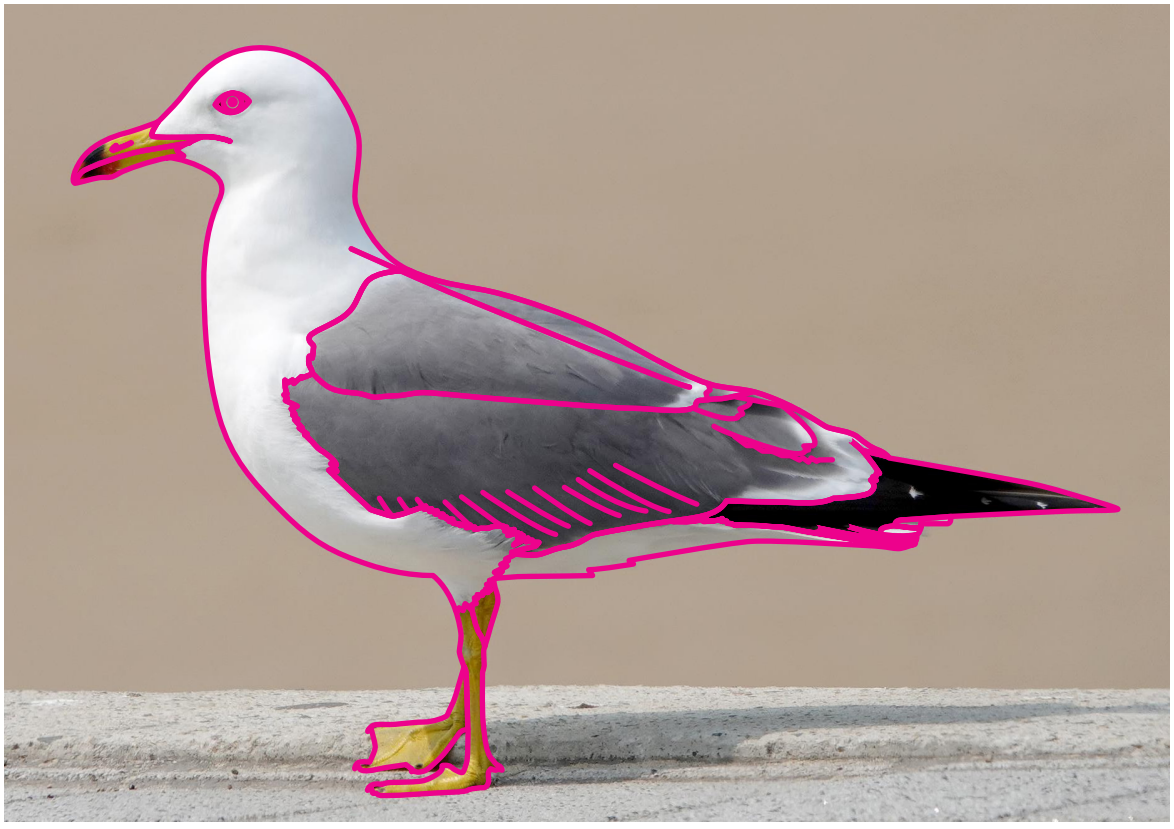
3-2
층꽃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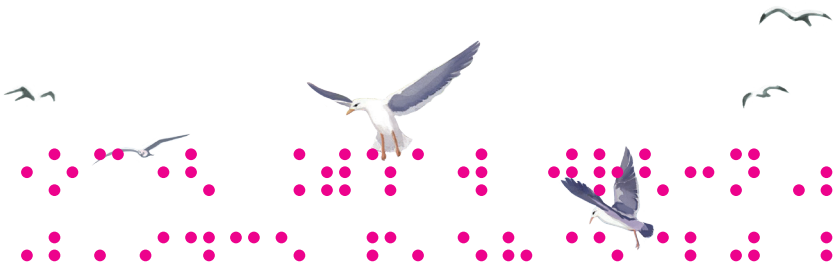




꽃이 줄기의 끝 잎에 층층으로 핀다하여 층꽃나무라 한다. 줄기가 나뭇가지와 비슷한 반목본성 식물로 지상으로 드러난 밑부분이 나무화 되어 살아있다. 줄기는 두더거로 나며 잎은 마주나기로 달걀형이다. 크기는 30~60cm정도로 작다. 꽃은 8~10월에 남보라색으로 핀다. 햇볕이 잘 드는 척박하고 건조한 절벽이나 바위 곁에서 잘 자라고 추위와 더위에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해안 일대의 섬 지방에서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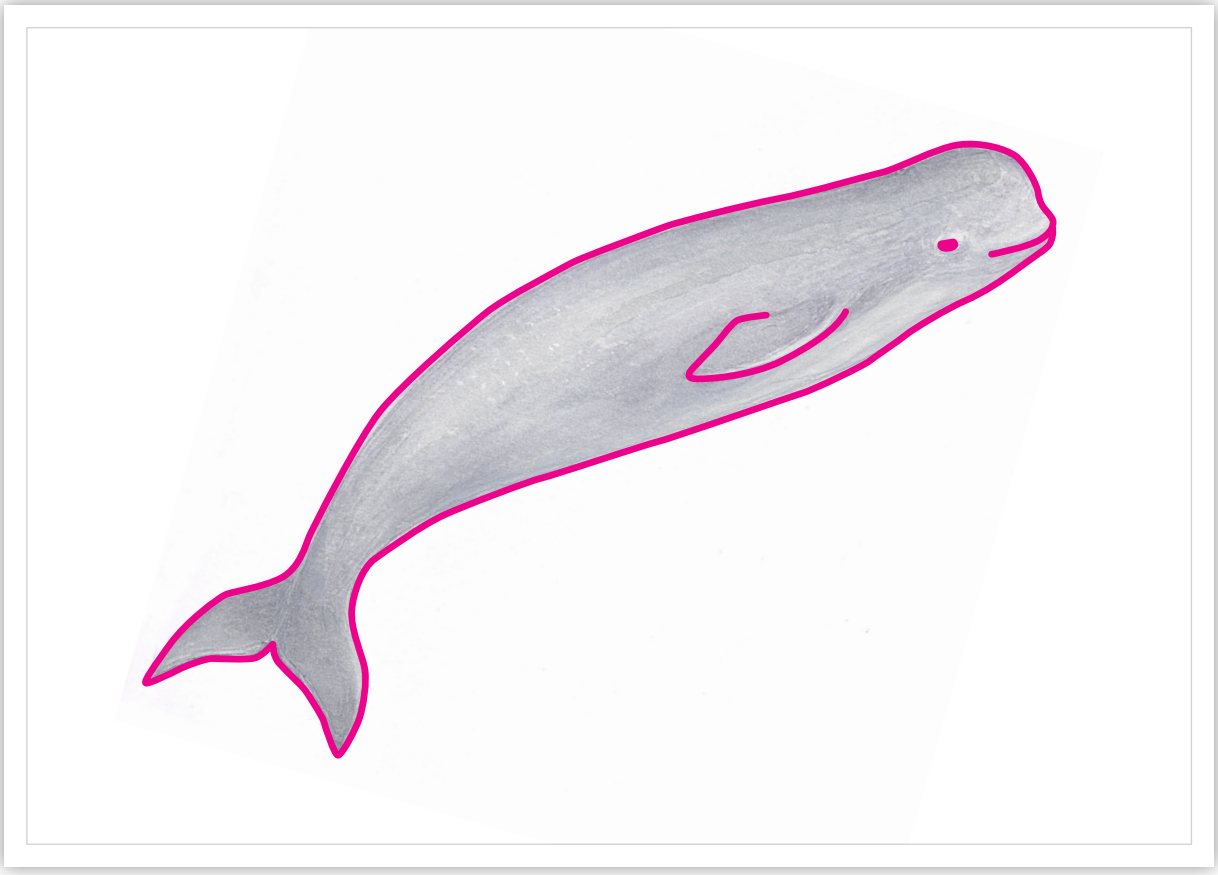
3-3
괭이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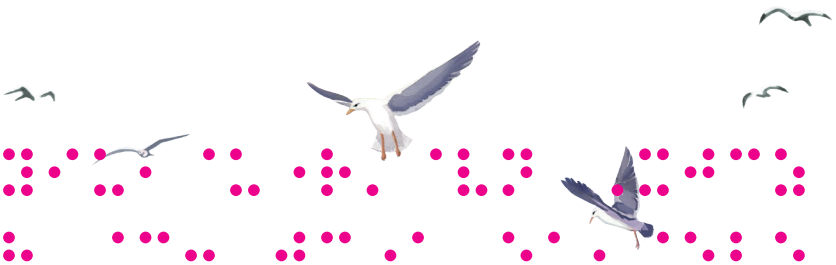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에서 쉽게 관찰 되는 갈매기과의 텃새이다. 크기가 약 47cm~52cm정도이고, 암수의 깃털 색이 거의 비슷하며 부리 끝에 붉은색과 검은 반점이 있다. 날개는 검은색이며, 꼬리 끝에 검은색의 띠가 있다. 어린 새의 깃털은 갈색이어서 성조와 구별된다. 해안 지역의 항구나 바다와 맞닿은 강의 하구 등지에서 어류, 양서류, 연체동물, 곤충류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봄이 되면 무인도의 벼랑, 풀숲, 바위틈에 마른풀이나 해초를 이용해 둥지를 만들고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짝과 짝짓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한 홍도는 괭여갈매기 집단번식지로 매년 약 60,000개체가 번식을 하고 있다.

3-4
상괭이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여섯 종의 고래 중 하나로 몸집이 작다. 인도양, 태평양 등 주로 넓은 지역에서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해안, 남해안에서 종종 목격된다. 몸의 크기는 최대 2m, 80kg까지 성장한다. 몸 색은 전체적으로 회백색이지만 서식처 환경에 따라 크기나 무게, 색이 다를 수도 있다. 상괭이는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느러미 대신 작은 돌기가 있다. 온난한 물에서 서식하며 바다와 강 양쪽에 서식이 가능하다. 작은 물고기나 정어리, 오징어, 새우등을 먹고 수명은 대략 25년 정도이다.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2017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상괭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4 연대도 지겟길







연대도는 섬 정상에 연기를 피워 올린 봉화가 있었다 하여 연기 연(煙), 대 대(垈)자를 써서 연대도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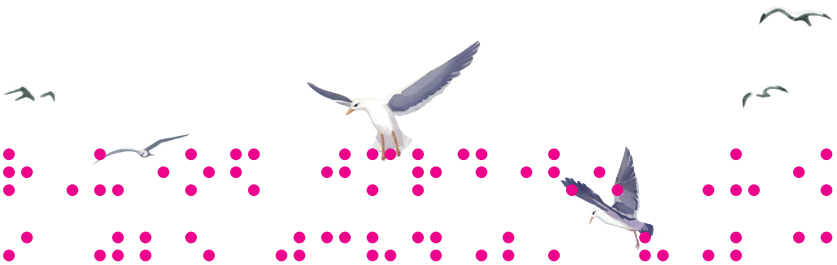
전체 거리가 2.3km정도로 작은 섬이다.

출발은 경쾌한 휘파람 소리로 시작된다. 새소리가 마치 휘파람을 부는 소리와 비슷하다 하여 섬휘파람새라 한다. 봄의 연대도는 노루귀가 여기 저기 피어 지겟길을 찾는 이들을 반긴다.

지겟길에는 남쪽지역에만 자란다는 담오미자도 있다. 연대도에서 작은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옆에 있는 만지도로 이동 할 수 있다. 연대도와 만지도 사이 해변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한다.

4-1
섬휘파람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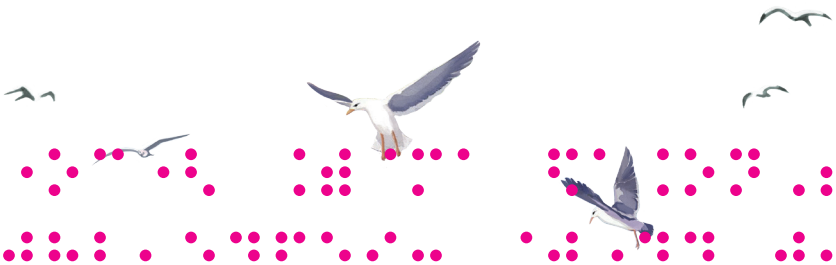




새소리가 휘파람소리와 비슷하여 휘파람새라고 하는데 일반 휘파람새보다 체구가 작아 섬휘파람새라고 한다. 우리나라 남부, 일본, 중국 동부에서 번식하고, 5~6월에 초콜릿색 알을 4~5개 낳아 15일 정도 알을 품는다. 번식기에는 새소리가 휘파람 소리와 비슷하지만 비번식기에는 금속성 소리가 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서해와 남해안 섬 지역, 서남해안에 인접한 내륙, 지리산, 소백산, 오대산 등의 관목림에서 번식하는 흔한 여름철새이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에 서식하는 일부는 텃새로 연중 머문다. 암수의 크기가 거의 같아 야생에선 구별이 쉽지 않다. 땅 가까이를 기듯이 어둥하며 겁이 많아 개방된 곳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휘파람새보다 체구가 작고 몸 색깔이 연한녹갈색이며 부리가 작다. 지저귐도 휘파람새와 비슷해 구별이 어렵다.

4-2
노루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전체에 희고 긴 털이 많다. '노루귀'라는 이름은 봄에 잎이 나오는 모습이 노루의 귀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3~4월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뿌리에서 난 꽃 줄기 끝에 핀다. 전 세계적으로 7종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는 총 3종이 있다. 낙엽수림 아래의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높이는 10~20cm 정도이며 환경 적응력이 좋아 자생지에 따라 꽃의 색이 달라진다. 자주 관찰되는 색깔은 흰색과 분홍색, 보라색 등이다. 이른 봄 초록 잎들이 나오기 전 화사한 꽃들이 피어올라 쉽게 발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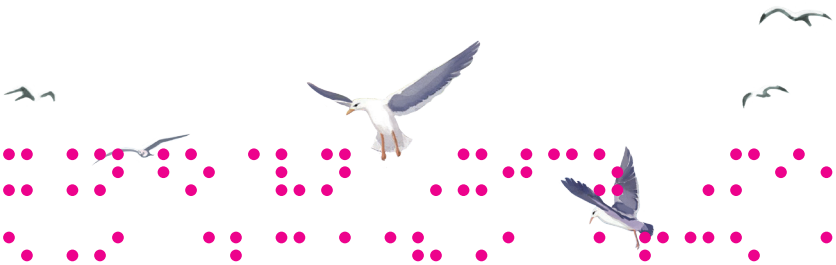
4-3
남오미자



목련과에 속하는 상록 덩굴 식물이다. 남오미자는 남쪽에서 자라는 오미자라고 하여 '남오미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미자와는 열매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 일반 오미자는 작은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달리는데 남오미자는 여러개의 열매가 뭉쳐진 짧은 송이로 되어 있다. 일본과 한국, 대만이 원산지이고, 산기슭 양지에 서식한다. 크기는 3m 정도이다. 꽃은 봄에서 한여름 사이에 연한 노란색으로 피며, 열매는 가을에 담황색으로 익는다. 반그늘인 곳과 어떤 흙에서도 잘 자라고, 다른 나무를 기어 올라가며 자라기 때문에 나무에서 새순이 잘 나온다.

4-4
수달





족제비과에 속하는 수달은 물과 육지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포유류이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은 과거 전국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무분별한 포획과 하천이 오염되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현재는 일부 강가나 해안가 지역에서만 관찰된다. 생김새는 머리가 편평한 원형이고 코는 둥글며 눈은 작고 귀도 작아서 주름가죽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몸은 길이가 63~75cm로 유연하고 늘씬하다. 몸무게는 6~10kg 정도이고 꼬리는 굵으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다리는 짧고 발가락은 발톱까지 물갈퀴로 되어 있어서 헤엄치거에 편리하며 걸어 다닐 때에는 발가락 전부가 땅에 닿는다.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물이 있는 곳이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휴식하고 밤에 사냥을 한다. 잡식성이고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기도 한다. 헤엄을 잘 쳐서 잠수만으로 400m 정도를 나아갈 수 있다. 수명은 19년 정도이다.

5 한산도 역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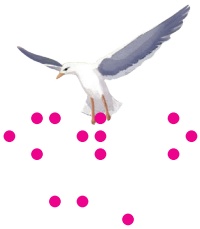


한산도는 통영, 거제의 많은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전체 길이가 12km로 꽤 길다.
역사길을 출발해 가다보면 은은한 솔향과 바닥의 푹신함을 느끼며 걷는 곰솔길이 있다. 망산교를 지나 망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시집가는 새색시가 머리에 쓰는 족두리를 닮았다하여 붙여진 개족도리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망산 정상에서 경치를 즐기며 내려오는 길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깃대종인 팔색조의 소리를 제법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 한산도는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 고둥의 끝 돌기가 총알처럼 생긴 총알고둥이 해안가 곳곳에 가득하다.

5-1
곰솔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원작자 현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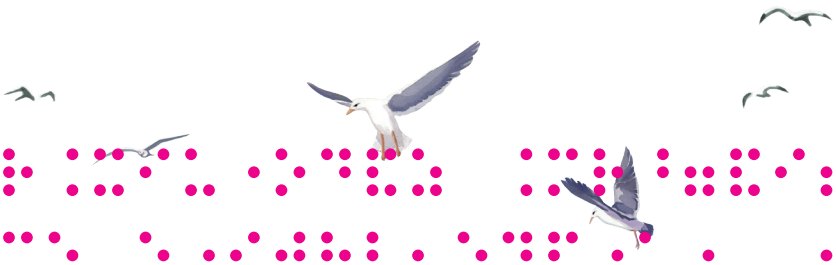
잎이 소나무의 잎보다 억센 곰 같다고 하여 곰솔이라고 부른다. 바닷가에 주로 자라기 때문에 해송이라 하며, 수피의 색깔이 소나무보다 검다고 해서 흑송이라고도 한다. 키는 약 20m이며, 잎은 2개씩 달리며 진한 녹색을 띤다. 열매는 50~60개의 씨앗바늘로 구성된 타원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꽃은 암수한그루이고 5월에 핀다.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지만 추위에는 약하다. 성장속도가 처음엔 빠르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소나무에 뒤진다.

바닷바람과 염분에 저항성이 강해 바닷가에서 방풍림으로 심기도 한다.

5-2
개족도리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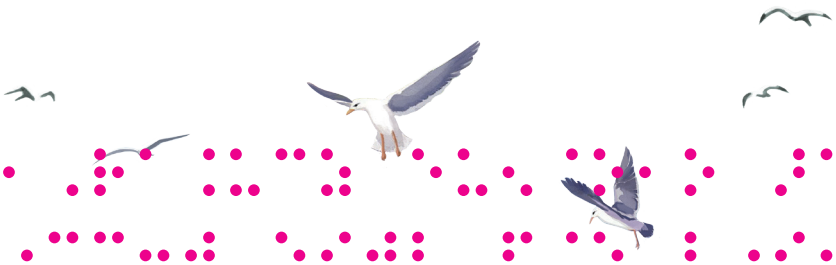
개족도리풀은 쥐방울덩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개'는 '다른'이라는 뜻으로 족도리풀의 한 종류다. 꽃 모양이 족두리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라산과 남해안 섬지방의 산지 숲속에서 자라며 섬 족도리풀이라고도 한다.

키는 10~15㎝정도이고 잎은 매우 크며 하트 모양이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백색 무늬가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뒷면에 털이 약간 있는 것도 있다. 꽃의 꽃은 세 갈래로 갈라진 항아리 모양으로 땅에 낮게 붙어 피며 열매는 자주빛이 도는 긴 타원형으로 8~9월경에 달린다.

꽃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곤충이 수정을 돕는 것이 어렵고 개미와 같아 땅에서 기어 다니는 곤충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진다.

5-3
팔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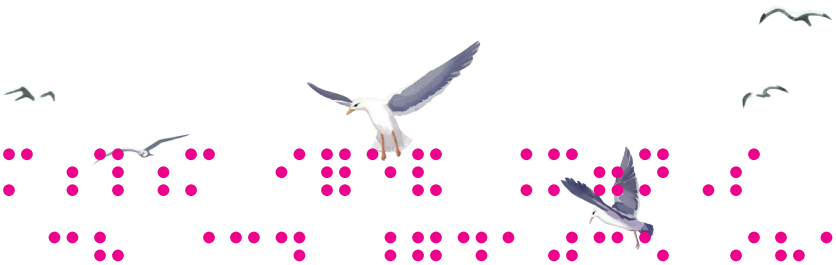
팔색조는 몸길이 약 18cm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다. 머리 위는 갈색이고 눈과 머리사이는 아이보리색에 부리와 눈 주위는 검은색, 등과 날개는 녹색, 어깨와 위 꽁지깃은 남색과 하늘색, 꽁지는 검정색에 목부터 가슴 부위는 흰색이고 배 중앙에서 아래꼬리덮깃까지는 붉은색이다. 짧은 꽁지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번식하는 희귀한 여름새로 5월에서 7월 중순에 5~6개의 알을 낳는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깃대종이자 천연기념물 제20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깃대종은 유엔환경계획이 만든 개념으로,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을 뜻한다.

5-4
총알고둥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원작자 김사흥



무척추 동물 중에서 조간대 가장 위쪽에 분포하는 대표 생물이다.

우리바다 갯바위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고둥으로 미세조류를 먹고 살며 파도가 부서지는 지역의 위쪽에서 발견될 정도로 건조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크기는 1cm 정도이며 두껍고 매우 단단하며 표면에 돌기가 총알모양이라 총알고둥이라 한다. 전체적으로 회갈색 또는 흑갈색 바탕에 다양한 무늬가 흩어져 있다. 독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울릉도 포함)의 갯바위에 살고 있다.

6 미륵도 달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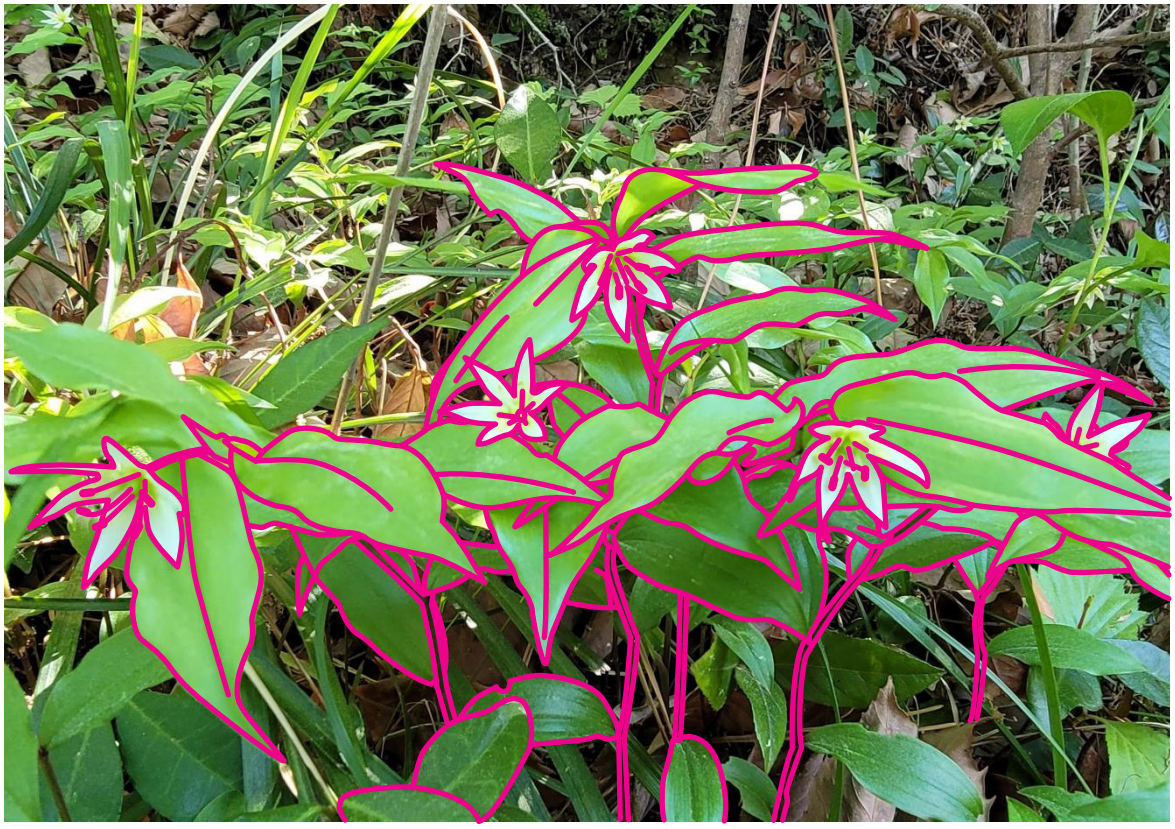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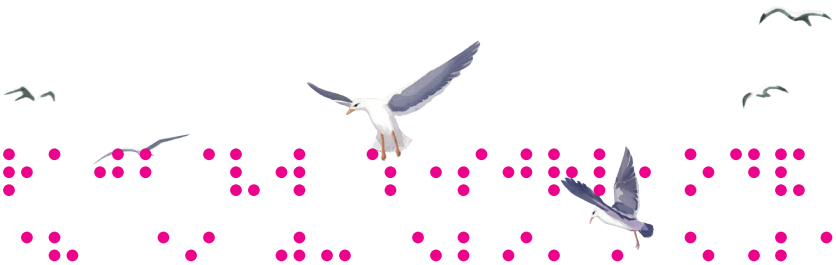


미륵도 달아길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어 총 14.7km의 둘레길이다.

미륵산 편백숲에서 시작되는 달아길은 짙은 편백향을 맡으며 시작된다. 작은 숲길을 따라 미륵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앙증맞은 꽃을 품은 애기나리가 있다. 1구간을 지나 희망봉으로 가는 2구간에는 회사한 투구꽃을 마주하게 된다. 강한 독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달아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붉은 콩깍지에 까만 콩이 마치 여우의 얼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의 여우콩이 있다. 달아전망대로 가는 길에는 진한 올리브빛의 작은 새, 동박새가 우리를 맞이 한다.

6-1
애기나리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꽃말을 지녔다. 연한 연두빛 꽃이 4~5월경에 피는데 꽃이 나리꽃 같지만 이름에 '애기'라는 말이 있듯 크기가 작아 애기나리라 한다. 크기가 15~40cm 정도이고 곧게 서서 자란다. 8~9월에 검정색의 열매가 달리고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자란다. 반음지의 경사진 곳에 습기가 잘 유지된 부드러운 흙에서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데 얼핏 보면 둥글레와 비슷하지만 줄기와 뿌리에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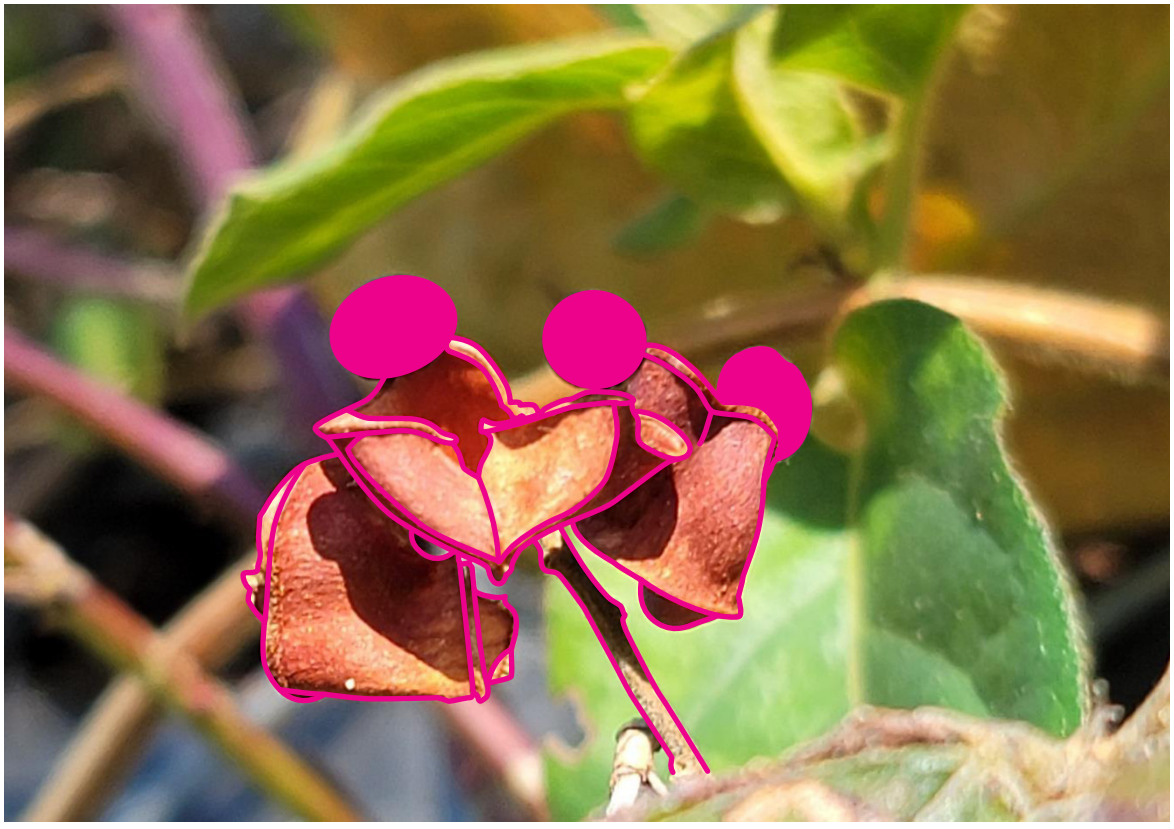
6-2
투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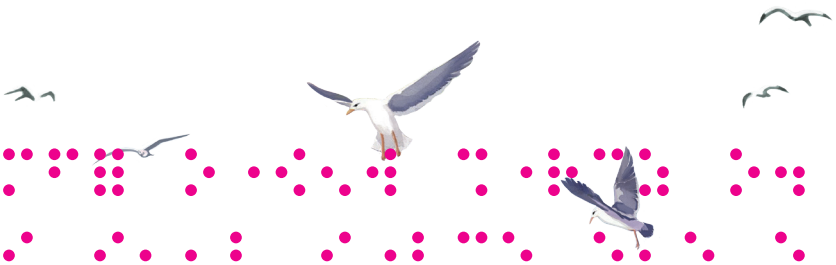




미나리아재비과의 투구꽃은 우리나라 제주도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로마 병사들의 머리에 쓰는 투구처럼 생겨 투구꽃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높이는 약 1m 정도이고 3~5개의 갈라진 잎이 어긋나게 나며 9월에 보라색 또는 흰색의 꽃이 핀다. 꽃이 예뻐 정원 관상용으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식물체 내에 아코니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6-3
여우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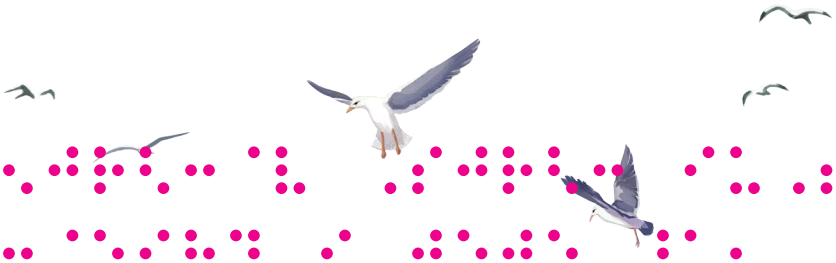




여우콩 이름의 유래는 잎 모양이 여우를 닮아서라는 말이 있고, 콩이 익으면 까만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가 얼마 동안 깍지에 붙어 있는데 이 모양이 여우와 닮았다고 해서 여우콩이라는 말이 있다. 남쪽 지방에 주로 자생하는 여우콩은 콩과 덩굴성 식물로 종자 번식 한다. 잎은 양면에 털이 있고 8~9월에 노란색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아래로 2~4cm로 10~20개의 꽃이 달린다. 10월에 꼬투리가 빨갛게 익으며 주머니 속 열매는 까만색으로 앙증맞다.

6-4
동박새





남해안과 서해안 도서지방, 해안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인 동박새는 동백나무나 상록수림이 울창한 숲에 서식하며 무리를 이루어 곤충류, 열매류, 꽃의 꿀을 먹어로 한다. 특히 동백꽃 꿀을 좋아해서 겨울철 동백꽃 개화 시기에 많은 무리가 동백숲으로 모여 든다. 그리고 동박새는 겨울철 벌과 나비가 없이 꽃을 피워야하는 동백꽃의 수정을 돕는다. 생김새는 크기가 대략 12cm정도이고 몸색이 윗면은 올리브색(녹황색)에 목에서 윗가슴까지는 연두빛 노란색, 옆구리는 갈색의 무늬가 있다. 눈동자 주변에 하얀 테가 있어 다른 새와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점자해설도감

손끝으로 걷는 바다백리길

초판 1쇄 발행 2021년 12월 10일

저 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발행처 국립공원공단

53072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117
TEL. 055.640.2400 **FAX.** 055.646.9205
www.knps.or.kr

ISBN 978-89-6700-104-9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